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달리는 강하다 김청굴 장편소설

주제어: 좀비, 가족, 존중과 연대, 로맨스

※ 책 소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좀비화되면서 하루아침에 도시 '태전'이 봉쇄된다. 65세 미만은 도시를 벗어날 자격이 있었지만 하다는 할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어 봉쇄된 도시에 남기로 결심한다. 평소 음식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할머니 '조끝순 여사' 덕분에, 두 사람은 비명과 고성이 오가는 바깥세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윗집과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할머니는 이웃들을 향한 근심이 멈출 새가 없고 결국 문을 두드리러 나서는데…….

※ 학습 목표

- ①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며 작품을 읽을 수 있다.
- ②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다.
- ③ 작품에 관한 경험을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좀비물 이해하기
2	독서 중 활동	1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배경지식 쌓기) 아포칼립스 장르 이해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 간의 관계 추론하기
3		2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감상적 읽기) 상호 텍스트적 읽기 + 작품 내용 내면화하기
4		3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관념에 대한 의견 나누기 3. (감상적 읽기) 작품에 관한 경험 나누기
5		4 1. (사실적 읽기) 작품 속 좀비의 특징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3. (사실적 읽기) 표현 방법의 효과 파악하기
6		5 1. (사실적 읽기) 작품 속 좀비의 특징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토론하기 3. (추론적 읽기) 복선의 효과 및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7		6 1. (사실적 읽기) 표현 방법의 효과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등장인물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기 3. (감상적 읽기) 작품에 관한 경험 나누기
8		7 1. (사실적 읽기)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인물의 가치관 비판하기 3. (창의적 읽기) 작품 관련 지식 확장하기
9		8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사건의 원인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작품 관련 지식 확장하기
10		9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소설 구성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3. (비판적 읽기) 작품에 반영된 사회 및 인물 비판하기
11		10 1. (사실적 읽기) 증의적 표현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그림으로 작품 내면화하기 3. (추론적 읽기)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12	독서 후 활동	가장 좋아하는 가족 음식 소개하기

1. 다음 영화 중 하나를 골라 감상하고 좀비물을 이해해 봅시다.

- ① <월드워Z>: https://youtu.be/2GuoRCDE6pk?si=LX7ww_T8-qPU950J
- ② <부산행>: https://youtu.be/GWPSnV1-1Z8?si=0CxxY-_Z_nCgLqHm
- ③ <좀비랜드: 더블 탭>: https://youtu.be/4pMZLLiggmU?si=q56ujMNfrrwDA_Yw

2. 여러분이 접해 본 좀비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영화,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등)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을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달리는 강하다》에서 그려 내고자 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어 봅시다.

〈보기〉

사회적 문제를 쉽게 투영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부두교의 주술로 되살아난 시체’ 말고는 따로 원인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 자본주의, 환경 파괴, 자연재해 등 어떤 이슈도 투영시킬 수 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베트남 전쟁과 인종차별 문제를 암시하고 있다. 현실의 재난과도 연결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9·11과 카트리나 재해가 닥친 후 좀비를 다룬 콘텐츠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2002년 개봉된 <28일 후>는 2000년 9·11 테러로 폐허가 된 뉴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좀비를 사회학으로 풀어낸 책 《좀비사회학》을 보면 드라마의 원작이 된 만화 《워킹 데드》의 작가 로버트 커크먼의 인터뷰가 나온다. “워킹 데드》 제작이 시작된 건 2002년 말이었다. 물론 9·11이 관련 있었다. 그 시절에 다들 그것만 생각하고 공포의 시기였다. 미친 일들이 잔뜩 일어났으니까. 탄저균이 우편으로 배달된다는가 그 밖에도 잔뜩, 결국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로 머리가 가득 차 버렸다. 세계의 종말에 관해서도 많이 논의했다.” 그는 좀비가 유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현실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는 지금에도 와닿는 말이다.

한국의 좀비 영화와 드라마도 시대의 불안이나 사회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서울역>과 <부산행>은 재난 상황에서 부재하거나 과잉되는 국가권력,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좀비물 중 가장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는 <킹덤>은 정치가 무엇인지 묻는다. 조선이 배경이지만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은희 작가는 <조선왕조실록>의 ‘괴질이 유행하여 열흘 사이에 사망자 수효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역병을 공포 바이러스, 좀비로 끌어들이면 효과적이고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았다. 또 그렇게 하면 그 시대의 아픔과 정서를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배고프고 험벗은 시대를 좀비라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

— 팬데믹의 시대 ‘좀비가 살아남았다’에서 발췌(시사IN, 2020.8.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94>

1. 다음 괄호를 채워 봅시다.

- ① 하다 엄마만 태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친구 ()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 ② 은우는 ()층에, 하다는 ()층에 산다.
- ③ 할머니의 나이는 ()세이다.
- ④ 은우는 ()이가 불편해서 달릴 수 없다.

2.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스토리를 진행해 봅시다.

▶ 참고 링크: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v1.8

<http://pandemic.com/%EC%A2%80%EB%B9%84-%EC%95%84%ED%8F%AC%EC%B9%BC%EB%A6%BD%EC%8A%A4/>

[지도 tip] 혼자 하는 것보다 짝을 지어 진행하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를 검색해서 진행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은우와 하다가 어떤 관계로 그려질지 추측해 봅시다.

<보기>

“핸드폰도 놓고 왔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 들고 온 거야?”

“어. 너만 들고 왔어.”

“앗…….”

이은우의 하얗고 투명한 볼에 홍조가 생겼다. 아이들의 찬양에도 친절하게 웃기만 하길래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근데 왜 빨개지는 거지? 내가 얼굴을 뻗히 보자 더 당황했는지 커피를 별컱별컱 들이켰다. 이은우의 속도에 맞춰 걸으면 집에 도착하는 게 한세월이겠다 싶었지만, 어쩐지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중략)

“학교에서 무슨 연락 오면 알려 줘.”

“응. 진짜 고마워. 정말로.”

19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이은우가 열림 버튼을 누른 채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안 올라가?”

“아, 올라가야지! 꼭 쉬어!”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은우는 닫힘 버튼을 누르면서도,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빠져나왔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 봅시다.

- ① 좀비에게 공격당한 65세 미만 시민들은 모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로 변했다. (O | X)
- ② 태전 시장은 태전에 남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중이다. (O | X)
- ③ 할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는 현동 할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O | X)
- ④ 은우가 자기 집으로 가자는 하다의 제안을 망설였던 것은 좀비가 될지도 모르는 하다 할머니의 존재 때문이었다. (O | X)

2. 은우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혼자야?”

이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다. 가족이 안 챙긴 건지 못 챙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남자에라도 다리를 다친 채 혼자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먹을 건 있어? 넵넵해?”

“응. 너는 왜 여기 있어?”

“난 집에 할머니랑 같이 있으려고 남았어.”

[지도 tip] 아직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은우가 아파트에 혼자 남은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중에 제시되는 이유와 비교하는 활동으로 연계해도 좋습니다.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동글동글 단팥빵 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iYjUWafckM>

3-1. 영상을 보면서 <보기>에 묘사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보기>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빵 냄새가 제일 먼저 콧속으로 밀려들었다. 이은우가 들고 있는 쟁반에 눈길이었다. 보드랍고 따뜻해 보이는 갈색 빵이 시야에 가득 찼다. 잘 익은 동그란 빵은 가운데가 살짝 들어갔는데 그 부분의 반죽이 얇아서인지 검은색 내용물이 살짝 비추고 있었다. 곁에 박힌 까만 깨까지 맛있어 보였다.

나는 감탄하면서 침을 꼴깍 삼켰다.

“웬 빵이야?”

“밤단팥빵인데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와…….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이런 걸 어떻게 집에서 만들지? 되게 맛있어 보여.”

검지손가락으로 살포시 만져 보니 따뜻하고 보들보들했다. 정말로 갓 만든 빵이었다. 나는 라면도 잘 못 끓이는데 빵을 만들다니……. 감탄하는데 이은우가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그 프라이팬은 왜 들고 있는 거야? 나 때리려고?”

3-2. 친구들과 좋아하는 빵을 나눠 먹으며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지도 tip] 책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심어 주는 활동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① 엄마가 태전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할머니가 10층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아기 엄마가 하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④ 은우 옆집에 살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2. <보기>를 참고하여 ‘착하다’의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 봅시다.

<보기>

“착하다고? 내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이은우의 말을 들으니 웃음이 터졌다. 웃음이 많지 않은데 이은우랑 있으면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다. 내가 웃는 이유도 모르면서 이은우가 따라 웃었다.

“착한 건 너겠지. 생각해 보니까 가끔 뒷집 학생이 인사 잘한다고 몇 번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 그러면서 얼굴도 잘생긴 게 마음도 잘 생겼다고, 본받으라고 잔소리도 하셨지……. 이제는 할머니한테 살갑게 대하고 말도 잘 들어 주고 손자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셔. 게다가 너 공부도 잘하잖아.”

“그건 그냥 인사를 잘 하는 거고,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지. 착한 게 아니야. 아무도 날 안 도와주고 지나칠 때 너만 되돌아와 줬어.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날 업고 뛰기까지 했잖아. 툭툭거리면서도 나한테 같이 있고 해 주고, 10층 아주머니한테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잖아. 그게 착한 거지.”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한자리에 가만히 있던 탓에 센서등이 꺼졌다. 팔을 흔들려고 했는데 아기 엄마가 재빨리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아기의 칭얼거림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떤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을

까? 엄마는 이런 걸까? 우리 엄마도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저렇게 단단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폈을까? 있는 힘껏 사랑을 주고, 내가 좀 자란 뒤에는 엄마가 원하는 일을 하러 나를 두고 밖으로 나간 걸까? 아빠는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만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엄마 일이란 뭘까? 아빠는 뭘 했을까?

① <보기>를 읽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②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그 시절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지도 tip]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우선 기준으로 두는 부모님의 모습'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영상 속에서 소개되는 좀비와 《달리는 강하다》 속 좀비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고 이런 차이가 작품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 참고 영상: 좀비 특집!! 영화 & 드라마 속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좀비 Top 10 - 살아있다 반도 킹덤
<https://www.youtube.com/watch?v=1PP1ppFEGk>

혈색 없이 창백한 피부만 제외하면 산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선크림을 듬뿍 바른 것 같기도 했다.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기괴하게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다.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평범한, 보통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천천히 걷는 모습은 날이 좋을 때 산책을 하는 것처럼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지도 tip] 좀비가 되기 전 노인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소설 속 설정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보기〉의 장면에서 은우의 혼잣말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추측해 봅시다.

〈보기〉

“이은우,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없었어. 넌 안 무서웠어?”
 “별로. 나 힘도 세고 잘 달리잖아. 너 업고 달린 거 생각 안 나?”
 “잘 달리는 건 알지만 밖은 위험하잖아.”
 “할 수 있어서 한 거지 뭐. 왜, 같이 나가고 싶었어?”
 “……아니, 나는 못 해.”
 “그럴 수도 있지. 난 괜찮았어.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10층에 내려가서 고기 먹자.”
 “너 정말…….”
 이은우가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이은우가 입을 열었다.
 “난 올라가서 설게.”
 “한우인데 안 먹어?”
 “피곤해서 자려고.”

[지도 tip]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소설의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1〉

비유란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상을 원관념이라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대상이나 사상을 보조관념이라 하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반드시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비유는 작품 속의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미와 정서를 확대하고 생동감을 제공한다.

〈보기2〉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사랑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었는데, 사랑이가 반사적으로 내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웬지 모르게 감동적이었다. 내가 구해 온 분유를 먹고 이렇게 힘을 내는구나. 엄청 작은 손인데 너무 따뜻하고 말랑거렸다. 손가락도 작고 손톱은 더 작아……. 세상에 속눈썹 긴 거 봐. 깜박거리면 정말 나비의 날갯짓처럼 보일 것 같았다. 머리카락은 한 줌이라 후 하고 불면 민들레 흩날리듯 사방팔방 날아갈 것 같았다. 술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풍성해지나?

① 〈보기1〉에서 설명한 비유법이 사용된 부분을 〈보기2〉에서 찾아 밑줄 그어 봅시다.

② 밑줄 그은 부분과 굵지 않은 부분을 비교한 후, 비유법의 효과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괄호를 채워 봅시다.

- ① 하다는 좀비로 변한 할머니가 사는 ()호의 현관문에 테이프를 엑스 표로 붙였다.
- ② 현동 할아버지는 ()에 살고 있다.
- ③ 101호에는 맛벌이 부부와 ()이(가) 함께 살고 있다.
- ④ ()에 서 있던 남자는 하다에게 먹을 것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2. <보기>에서 자동차로 좀비를 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보기>

“좀비라서 잘 안 죽나 봐! 한 번 더!”
 “오케이! 내려와서 벨트 매!”
 서 있던 사람이 차 안으로 들어가자 운전자는 주차장을 크게 돌더니 이번에는 앞쪽으로 액셀을 밟았다.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돌진하기를 몇 번 반복하자 쓰러진 좀비들 때문에 길이 막히기까지 했다. 베란다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휘파람을 불며 응원했다.
 “저희가 좀비 좀 없애 드렸어요! 봉쇄가 풀릴 때까지 다 같이 잘 버텨 봅시다!”
 다시 선루프가 열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자 아파트 단지에서 환호성이 쏟아졌다. 다른 곳으로 가서도 저렇게, 선의인 양 행동하겠지? 주차장에는 이제 좀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 나는 저 사람의 행동에 찬성해. 왜냐하면 () .
- 나는 저 사람의 행동에 반대해. 왜냐하면 () .

3. <보기>에서 복선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봅시다.

<보기>

“저년이 사람 버리고 간다! 내가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나야말로 저 아저씨 때문에 죽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뛰어서 울타리를 넘고 도로를 지나 평소보다 더 돌아서 갔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못 다닐 것 같았다. 그런데 저 아저씨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나? 저렇게 날뛰는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다. 짜증이 난 채 아파트 현관 입구로 향하는데 1층 베란다에서 누가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관심을 가졌겠지만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눈길도 주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이젠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다.

- 복선: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보기>의 밑줄 친 표현에서 내포하고 있는 주인공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옷소매로 땀을 닦고 숨을 가다듬은 다음 101호에 가서 아까처럼 리듬감 있게 똑똑 똑똑똑 두드렸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무언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아까 봤던 줌비와는 다른 줌비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놈의 자동문!

뭐라도 들고 올 걸 그랬나. 아무리 줌비라고 해도 노인이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게 후회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공격할 각오를 했어야 했는데, 나오면서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었나? 입술만 깨무는데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은 손이 나를 잡아당겼다.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문을 단자마자 쾅! 하고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난 하다의 생각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보기>

“아, 어, 그래. 있잖아 하다야. 아가가 할미를 무서워하잖아. 앞집에 건너가 있을까? 너랑 지민이랑 둘이 여기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입술을 좌우로 늘려 굳은 근육을 푼 다음 할머니한테 화가 났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나한테는 그 누구보다 할머니가 중요해. 그리고 여기가 할머니 집인데 어딜 나가. 지민이가 할머니를 불편해하면 지민이를 이은우한테 맡길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어린 게 혼자 얼마나 무서웠으면 나를 보고 떨겠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었다. 나도 혼자 있는 지민이를 보고 슬프고 화가 났으니까. 그러나 감정이 들끓는 건 어쩔 수 없었다.

- 할머니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
- 지민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

3. <보기>에 제시된 장면처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눠 봅시다.

<보기>

벽에는 곱게 화장을 하고 잘 차려입은,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학사모를 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민이에게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어제 봤던 할머니라고 하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작년에 할머니와 엄마와 내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은 지금의 할머니와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였다. 꽃밭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장소는 달라도 사진 속 할머니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지민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지민이는 사진을 통해 점점 나이 들어가는 할머니를 알아 가는 중이었다. 얼른 지민이가 할머니에게 익숙해지면 좋겠다. 내게는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진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지금까지 소설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고려하여 각각의 MBTI를 추측해 봅시다.

- 할머니:
- 강하다:
- 이은우:

2. 다음 영상을 보고 <보기>에서 밑줄 그은 할머니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참고 영상: 장애인 시위 재개에...욕설·응원 엇갈린 출근길 지하철
<https://www.youtube.com/watch?v=Go3ii7BDE3Y>

<보기>

“그런데 내가 사고를 당하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할머니가 날 외면했으면 차라리 나왔을까? 우리 손주 불쌍하다고 우시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시고, 몸에 좋다는 거 구해다 주시고……. 내가 이렇게 된 후로 장애인 관련 뉴스가 나오면 더욱 유심히 보시더라.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반응이었어. 권리를 찾기 위해 시위라도 하면 창피한 줄도 모른다고 혀를 차서. 그러면서 내 밥에 반찬을 올려 주셨지. 내가 밖에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똑바로 걸으라고 속삭이셨어.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듯, 이 상태가 잠깐일 뿐이라는 듯이. 그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2.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하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참고 영상: 산부인과 원장들이 알려주는 생리통 꿀팁!! 생리통의 원인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Go3ii7BDE3Y>

<보기>

옥상을 꾸미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식물들을 보니 뿌듯했다. 화분이 가득한 베란다만 보아도 좋았는데 그보다 넓고 탁 트인 옥상에 식물들로 꾸며 놓으니 멋진 휴식 공간이 되었다. 텐트도 치고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도 갖다 놓았다. 열심히 꾸민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도 계속 기분이 가라앉았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 할머니도 짜증 나고, 할머니한테 가 보지 않고 미련하게 일만 하는 나 자신에게도 짜증이 났다. 그런 와중에 생리까지 시작되었다.

생리 죽어라. 내 기분이 널뛰고 욕한 게 생리 때문이었을까?

왜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걸까. 불규칙적으로 하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래도 이유를 알았으니 조심해야지. 생리 진짜 싫다. 점점 아파 오기까지 해 대충 씻고 진통제를 먹고 침대에 누웠다. 몸을 등글게 말고 약효가 들길 기다리는데 은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생리통.”

“아……. 보온 물주머니 해 줄까? 약은 먹었어?”

“……약은 먹었어. 물주머니 해 줘. 초콜릿도.”

“조금만 기다려.”

은우가 갖다 준 보온 물주머니를 배 위에 대고, 초콜릿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먹으니 아까보다 덜 아픈 것 같았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① 할머니와 화해하기 위해 하다가 가져간 선물은 무엇입니까?
- ② 하다가 할머니를 찾으러 간다고 하자 은우가 챙겨 준 것은 무엇입니까?
- ③ 현동 할아버지가 살던 곳의 대문 색깔은 무엇입니까?
- ④ 할머니와 현동 할아버지가 숨은 곳은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2. <보기1>과 <보기2>를 읽고 노인들이 좀비로 변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1>

할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친구랑 통화하는지 핸드폰 너머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그 약 먹어?”

“이럴 때일수록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지. 내가 너 준다고 할 때 받지 그랬어. 머리로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진 다니까?”

“아이고, 난 됐어. 잘 모르는 약 먹으면 우리 딸한테도 혼나. 조심혀. 병원도 못 가는데 이상한 거 먹다 탈나지 말고.”

<보기2>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숙이 할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셨다.

숙이 할머니 머리맡에는 하얀색 약통이 있었다. 확인하니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써 있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문득 전에 할머니가 통화하던 내용이 스쳤다. 고개를 가웃하다가 숙이 할머니의 옆을 확인하려고 이마에 손을 대려는데 갑자기 숙이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냈다. 마치 좀비처럼……!

“그르르!”

순간 향수를 바닥에 부은 것처럼 노인 특유의 체취가 아주 강하게 퍼졌다. 방문을 열어 왔는데도 냄새가 방안에 고여 있는 것 같았다. 강한 냄새 때문에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숙이 할머니가 비명과 함께 입을 크게 벌렸다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노인 체취에 대한 정보를 살펴봅시다.

▶ 참고 영상: 생활의 발견_노인 냄새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ez0o-zbOR8o>

〈보기〉

여전히 할머니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할머니 손을 꼭 붙잡은 채 숙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숙이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방 안에서는 노인 특유의 체취가 강하게 났다.

“나이 들면 나는 그…… 특유의 체취가 있으면 공격당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할머니랑 같이 붙어 사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숙이 할머니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자극하지 마!”

“이거 봐, 정말 가만히 있네……. 내가 늙었기 때문에 좀비가 될 수 있지만, 늙었기 때문에 무사하다고?”

할머니는 마음이 심란한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잘 달래서 방을 나갔다. 나도 두 분을 뒤따르다가 몸을 돌려 숙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땀구는 약통을 뒤로 한 채 숙이 할머니는 빛이 꺼진 눈동자를 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지도 tip]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소설의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보기〉

좀비들 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서 그런지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① 〈보기〉의 밑줄 친 ‘좀비에게서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보기〉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어, 아냐. 와, 이 케이크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만들 수 있어?”

“응. 내가 예쁘게 만들게.”

은우는 빵보다는 떡이 나올 것 같다며 나에게 이런저런 앙금 플라워 떡케이크 디자인을 보여 줬다. 사진 속에 있는 케이크가 정말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다.

② 〈보기〉의 밑줄 친 하다의 말이 후에 어떤 장면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2. 할머니 결혼식 준비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정리해 봅시다.

- 하다:
- 지민:
- 은우:
- 지혜 이모:

3.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옥상으로 올라와 할머니의 결혼 소식을 알릴 겸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연결음을 듣고 나서야 오늘이 평일인 걸, 일하고 있을 시간인 걸 깨닫고 끊으려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곧 회의 가야 해. 무슨 일 생겼어?”

“아……. 엄마 있는 곳은 괜찮아?”

“그럭저럭. 안 그래도 65세 정년퇴직 예정인 사람들은 썩 다 격리 조치되서 회사에 못 나오고, 혹시 모른다고 62세부터는 전부 다 해고했다더라. 이리다 정년이 60세로 내려오겠어. 상황이 이래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면 몰매 맞을까 말도 못 했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태진 바깥 세상에서는 좀비가 왜 생겼는지 조사하는 걸 멈췄는지 관련 뉴스가 안 나온 지 꽤 됐다. 오히려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가두어 관리하고 있었다. 초반에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비난하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계속 좀비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진 신고하면 다른 가족에게 혜택이 있다는 홍보까지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글쎄. 한적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보낸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 좀비가 된 건지, 실험을 하는 건지, 안락사를 시킨 건지 뭔지……. 하다야, 엄마 곧 들어가야 해.”

예전이라면 서운했을 터였다. 그래도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으니 수긍하고 체념하고 응원했겠지. 봉쇄 도시에서는 필요한 물건은 그냥 가져올 수 있었지만, 봉쇄 도시 바깥은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물가도 들쭉날쭉해 열심히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제는 괜찮았다. 생각보다 더 많이.

① <보기>에 제시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② <보기>에 제시된 엄마의 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보기>에 제시된 중의적 표현의 종류 중 <보기2>의 밑줄 친 부분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보기1>

중의적 표현은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의 의미적 유연성이나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의적 표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휘적 중의성 (Lexical Ambiguity):

같은 소리(발음)를 가지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인한 중의성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라는 단어는 금융 기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강가에 있는 나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 구문적 중의성 (Syntactic Ambiguity):

문장의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녀가 좋아"라는 문장은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혹은 "나는 그녀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문장적 중의성 (Structural Ambiguity):

문장 내에서 구나 절의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큰 개를 좋아해"라는 문장은 "내가 좋아하는 개는 크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큰 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문맥적 중의성 (Contextual Ambiguity):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정말 끝내준다"라는 표현은 칭찬이 될 수도,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참조적 중의성 (Referential Ambiguity):

대명사나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불분명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그녀를 봤다"라는 문장에서 두 번째 "그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보기2>

꽃다발을 들고 집에 가서 하늘색 플리츠 스커트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은우네 집으로 올라갔다. 은우가 말없이 바라보기만 해 조금 불안했다.

"이상해? 뭐 묻었어?"

"아니, 아니야. 되게 예뻐."

"그치? 태권도장 아저씨 아내분이 만들어 주셨대."

나는 부케가 땅가지지 않게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2.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결혼식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하객은 우리뿐이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 환호하고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가까워진 할머니를 보고 얼굴을 붉힌 채 서 있었다. 할머니는 정말 고우셨다. 웨딩드레스는 할머니가 옷을 입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A라인으로 만들었는데, 매끄러운 재질의 블라우스와 원피스를 조각내어 이어 붙이고 그 선을 따라 레이스와 조화를 달았다. 비즈로 화려하게 수놓은 면사포까지 쓴 할머니는 꽃의 여왕처럼 보였다.

[지도 tip] AI 활용 교육과 관련하여 챗 GTP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러스트를 그려 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도 좋습니다.

3. 소설 속 좀비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상상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보기1>, <보기2>를 읽어 보고 이 작품에서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1>

작은 식당을 했던 할머니의 요리는 뭐든 맛있었다.

그중 최고는 김치였다. 할머니는 철마다 배추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동치미, 깍두기, 고들빼기김치 등을 담가 택배로 보내 주셨다. 엄마 아빠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드물어서 김치는 모두 내 몫이었다. 그 덕분에 끼니를 거르지 않았고, 혼자 먹는 시간도 외롭지 않았다.

<보기2>

안녕하세요. 김청굴입니다.

이번에는 김치 만드는 방법으로 작가의 말을 시작하려 합니다.

할머니의 김장 김치 담그는 방법(열 포기 기준)

양념소 준비물: 고춧가루 한 근(섞어 보고 가감하기), 골파 한 단, 대파 세 개, 양파 세 개, 손가락 세 개 크기의 생강 한 개, 마늘 열다섯 통 갈아 넣기, 무수 한 개 채썰기, 갓 한 단, 멸치액젓 반 병, 찹쌀풀(물을 너무 많이 붓지 않기)

1일차, 저녁 5시쯤 배추를 절구고, 밤 11시쯤 위아래 바꾸기.

2일차, 아침에 배추 씻기. 물이 빠지면 양념 묻히기.

배추를 4등분하기. 우동 대접으로 소금 세 번 물에 풀어서 소금물 만들기. 거기에 덩빙덩빙 담그기. 배추가 절여지면 위의 배추를 아래에, 아래 배추를 위로 바꿔 놓기. 만져 보고 절여진 것 같으면 소쿠리에 꺼내서 배추대가리쪽에만 소금 약간 뿌리기. 양념소 버무리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 맞추기. 배추대가리 손질해서 버무리기. 고무장갑은 고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비닐장갑은 괜찮다(그렇지만 할머니는 맨손으로 담그세요).

(중략)

이 소재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김치를 담근다는데 좀비가 사방에 있다면 어떨까?’와 ‘우리 할머니 김치 엄청 맛있는데! 소설에 쓰자!’가 엮이면서 탄생한 소설이에요.

2. 다음 질문에 답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 있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질문	답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가/께서 만든 ()
그 음식과 관련된 추억은?	
그 음식을 생김새나 맛을 설명한다면?	

3. 가족 구성원에게 2에서 선정한 음식의 레시피를 묻고 정리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박정아 올린 할머니의 레시피 한 장 “할머니 음식을 기억하고 싶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agquiNgtXOM>

4. 2에서 선정한 음식을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 ▶ 참고 영상: [#먹어방] 김대명이 생일 때마다 먹었다는 수유리식(?) 함박 스테이크
<https://www.youtube.com/watch?v=e3GyMLgWc4Q&t=47s>

5. 2~4의 내용을 정리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